크리스천은 제사를 어떻게 해야죠? ❧

1. 효도개념의 변천

효는 천명을 따르는 윤리의 기초이며, 천인합일에 도달하는 길이고, 효는 대가족제도의 통일과 조화를 유지하는 사회적 원리이고, 국가의 안정을 이루는 정치원리였다.
후에 여기에다가 종교적 요소도 가미되었다. 원래 공자는 영혼불멸이나 사후세계에 대해 별로 안 가르쳤는데, 유교전통이 일반 토속신앙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교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교적 신앙으로 변질되었다.
후손이 제사지내면 조상의 혼백이 나무로 된 신주를 하나의 거처로 삼아 사후에도 얼마간 안정된 삶을 유지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명백한 미신이다.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늘의 뜻에 맞기에 제사지낼 때 하늘의 복을 받게 된다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죽은 조상들이 직접 복을 주는 하늘의 신의 자리를 대치하게 되었다.

2. 천주교의 전래

(1) 처음에는 제사반대 : 1784년 북경사절단원 이승훈이 세례받고 귀국하여 친구 이덕조에게 세례를 준 것이 조선의 천주교 원년이 된다. 처음 천주교회는 유교의 제사에 대해 비판적 입장 취함. 신자들이 신주를 불태우고 제사를 거부하자, 전라도의 윤지충, 권상연등이 순교당하는 신해박해 사건이 1791년에 발생함.

(2) 새로운 정책 : 제사를 허용함

가. 1939년 로마교황청이 새로운 입장표명함 : 일본과 이태리가 동맹을 맺음. 신사참배나 조상숭배의식은 종교의미가 아니라 시민적 의식(civil rite)이라고 교황 피우스12세가 교서를 내림. 그 이후 제사가 허용됨. 그동안 80년동안 제사문제로 순교자가 만명이 발생함.
이것이 헛된 죽음인가?

나. 연옥사상 때문에 제사를 허용함 : 죽은 조상을 위해 제사지내는 것을 합리화함.

3. 개신교의 전래

처음부터 제사를 거부함. 1883년 서상윤이 만주에서 세례받고 돌아옴 .1891 -1897년까지 세례자의 서약 일곱 가지 중에 제사를 거부하는 약속을 하게 함 : 처음부터 어려운 결단을 하고 세례를 받음

☼ 청소년과 함께하는 QT나라 , 「 새벽나라 」
http://isena.com/